

David Emanuel 박사, 세션 5, 출애굽기 시편

135편

© 2024 데이비드 에마누엘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모임, 시편 135편, 주님의 최상권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시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을 보면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 마지막 시편인 시편 135편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편은 제가 주님의 최상권이라고 부르거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 음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양의 찬송입니다. 군켈이 찬양의 찬송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온 모든 장르, 다양한 장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종의 찬양 찬송인 시편 136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78편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애가와도 비슷하거나 지혜의 시편과 더 비슷합니다.

우리는 시편 105편에서 매우 독특하고 다른 찬양의 찬송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106편에서 탄식, 분명한 탄식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시편 중 어느 것도, 모든 출애굽기 시편이 하나의 특정 장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르를 넘나들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이 특별한 시편에서는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약간 다릅니다. 이 특별한 시편에서 출애굽기의 주요 용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특히 다른 우상들의 무력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우상들의

무력함 사이에 직접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독특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점은 그것이 성경 문헌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본문 안에 성경 문헌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이 시편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강력한 암시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처럼 찬양의 찬송으로도 비교적 긍정적인 주제이며, 이스라엘이 행하는 부정적인 것은 대체로 생략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서론으로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로 함께 모이도록 초대하는 찬양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창조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두 테마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찾을 때 우리는 종종 창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부 설명에서 바다를 꾸짖는 하나님의 묘사가 창조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창조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으로 되돌아가 보면 104편이 사실상 창조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기 자료로 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다루었던 세 편의 시편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시편은 시편 104편, 105편, 106편입니다. 함께 보면 100편이 창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삼해를 건너 유배지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함께 보면 창조부터 유배까지의 역사를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창조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다음 짧은 찬양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종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도입부 찬양을 상기시키는 두 구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국가의 우상인 은과 금,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형상의 무력함과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쓸모없는지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찬양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시편을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와 칭찬에 대한 권고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칭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할렐루야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국가의 우상들의 무력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강제되고 그 중심에는 찬양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대한 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 애완 동물의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인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에는 변형이 표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것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문구인 이 문구에서 우리는 함께 결합된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할렐루야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할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필수입니다. 이는 야훼를 찬양하거나 자랑하라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번역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자기 소유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으니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segula .

그들은 am segula , 특별한 소유물인 사람들입니다. 전도서에 가면, 당신이 소유하고 따로 보관할 특별한 보물, 즉 개인 재산에 대해 말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segula 의 아이디어 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소유물도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이 구절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모티프와의 연결이 반드시 이러한 초자연적 행위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결, 즉 언약의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넌 세굴라가 될 거야 샬리(shali), 나의 세굴라(segula)는 열국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그래서 번역본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그 특정 단어의 힘과 무게에 약간의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 느낌대로야. 다시 한 번, 당신은 엘로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이 신이나 신들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와 위대하시며 우리 주 여호와와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엘로힘 위에 계시느니라. 또 그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나 열방의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서문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시편의 일부 서문을 읽을 때 시편 105편의 서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78편의 서문도 읽었습니다. 두 시편 모두에서 시편을 소개하기 위해 니 플라핫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

나는 이 기적의 언어인 gedolot 를 언급했습니다. 서론에서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시편에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에 나오는 Adonai의 niflahot이 실제로 무엇 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모든 신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표시와 비슷한 키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말하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주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방법을 모르신다면 계속 읽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편의 서론에서 확립된 기본 주제를 얻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단서, 힌트, 암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이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조에서 전능하심의 예를 봅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우리 마음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 속에서, 창조는 6일, 6기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전체 상황에 대한 신학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6일 안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가 그 기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한걸음 뒤로 물러나셨다. 나는 이것을 전에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영원한 안식에 쉬는 동안 그를 위해 가서 일을 운영할 대자연을 발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개념은 성경적인 창조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사물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비를 보낸다. 그는 계속해서 태양을 보낸다. 그는 계속해서 작물, 나무, 식물을 재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활동하며 세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땅끝에서 증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것이 바로 창조행위이다.

그는 세상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세계와 이 행성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전능함과 출애굽기의 전능함을 순서가 반대인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약간 반대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썄, 그는 당신이 원한다면 먼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재앙들을 행하신 다음 장자들을 행하셨는데 장자들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우리가 시편 136편에서 처음 한 일을 회상합니다. 이제 이 두 시편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그는 많은 나라를 치고 강력한 왕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해 말하는 트랜스요르단 지역에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36편에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데자뷰(deja vu)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창조물을 소유하시고 창조물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고 자격도 있으시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땅을 유산으로 준 계단식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서 반복되는 유산, 곧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산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의심할 바 없이 이전 시편의 종소리를 울릴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시편의 이 부분을 볼 때 그것을 신성한 이력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무엇을 하는가? 음, 여기 그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운영합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왕들을 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력서를 갖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가 누구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 지점에 신성한 이력서를 배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 당신의 이름이 영원함을 말하는 찬양 휴식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주를 대대로 기억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문학적 경첩입니다. 시편 중간에 나옵니다.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들의 이력, 열방의 우상을 보기 전에 지금 경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분배하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오직 심판만 하실 수 있으며, 의인이라면 오직 긍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시편 기자가 그의 백성이 의롭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로우므로 나는 이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당신이 원수를 심판하고 싶다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름, 당신의 이름에 대한 생각은 1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도다 하였느니라.

이 맥락에서 히브리어 이름의 개념은 사람의 평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의 평판, 즉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귀속되는 모든 것, 그 뒤에 있는 힘, 권위, 그 뒤에 있는 전능함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의 이력서, 즉 열방의 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구조를 통해 주님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의 우상은 기본적으로 특징은 있지만 기능은 없습니다.

특징은 있지만 기능은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면 그에게는 특징이 없고 기능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가를 하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아이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것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5편에서 애굽과 관련된 것을 보았지만 여기에는 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호흡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입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 있는 것인데, 얼굴 특징에 관한 국가 의 신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포함이라는 것을 통해 그룹이나 특정 일련의 특성을 캡슐화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로부터 당신은 이 시편의 목적이 실제로 우상 숭배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을 암송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말씀인데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매우

소극적이며, 다른 나라의 신들을 매우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우상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지막 섹션은 성전 내에 다양한 그룹이 있는 그룹 권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그룹과 다른 합창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전에서 낭독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아론의 집, 레위의 집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일반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다양한 그룹이 있는 일종의 성전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언급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시편이 기본적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나는 또 다른 포함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찬양의 노래로 처음과 끝이 같은 방식으로 구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편의 매우 특이한 점은 그것이 다른 자료를 암시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시편은 거의 다른 많은 시편의 예비 부분을 모아서 만든 시편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여전히 그것을 창조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편에서 문학적 차용에 대한 좀 더 뻔뻔스러운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35장 7절이고, 이것은 예레미야서 10장 13절입니다. 그는 땅 끝에서 증기를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느니라.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일으키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느니라.

이것은 두 구절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나는 애완 동물의 오줌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의 히브리어 표현은 시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Nazbi는 증기가 여기로, 구름이 여기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정확히 동일하더라도 말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시편 기자가 단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복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번역자들은 왜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실제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꼬마를 봅니다. 이것은 분사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vav와 불완전한 형태인 va'iktoi 로 변경된 정확한 복사입니다 .

그 외에도 이것은 이 특정 장소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신명기 32,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판사, mishpat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옹호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여기 두 곳에서 판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명기를 번역한 사람들은 토론토에 있었고 시편을 쓴 사람들은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복사하고 빌려오는 일이 있어서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표현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한 곳에서 가져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를 치고 강력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의 친절은 영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몇 가지 유사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또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곧 이스라엘에게 기업이요
 이스라엘에게 기업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시편에서 따온 정확한 표현을
 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시편이 됩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편 15절과 시편 115장 4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가진 나라들의 우상은 은과 금뿐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그들은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귀가 있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것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 그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

시편 135편은 다른 시편에서 같은 표현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제가 그것을 프랑켄슈타인 시편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를 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 모든 개별 장소에서 표현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명확한 예이지만
 그가 자료를 빌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출애굽기 자료
 중 일부가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시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기자가 출애굽기 15장의
 시적 예와 산문 예를 차용한 첫 번째 예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작품 창작을 돕기 위해 또 다른 시적 전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오래된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것, 아주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문학적 암시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문한 방식에는 여전히 많은 창의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전혀 없는 값싼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부분.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시편을 요약하고 그 후에 출애굽기 시편에 대해 우리가 배운 다른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가 찬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과 마찬가지로 또 찬양의 찬송이지만, 시편 105편과는 아주 다릅니다.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대는 정말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창작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돌과의 직접적인 비교와 같은 다른 자료도 훨씬 더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아주 아주 다르며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시편에는 중개자가 없습니다.

모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론이나 이들 인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건너뛰었습니다. 시편 136편 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왕이라는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편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병치된 또 다른 이유는 다음 시편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왕들과 더불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옥과 시혼의 왕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싸우시며 그런 의미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사용했던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열국의 우상들의 잠재력에 비해 그분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에서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와 출애굽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나는 이전에 이 두 주제가 출애굽기 시편 전체와 성경 전체에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편 135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전체 시편의 최종 요약 요점을 빠르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편 속에서, 시편 속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약 사항입니다. 우선,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적 전통이라는 점을 시작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전통. 그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스며 듭니다.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조각들 사이에 햇불이 있는 창세기에서 그 예를 보았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는 동안 파라오에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 압제를 통해 그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집이 재앙을 받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떠날 때, 그는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동안 그들은 파라오에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은금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바로 거기에 명확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나중에 출애굽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땅에

내리는 재앙, 메뚜기, 개구리 등이 모두 출애굽 모티브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으므로 시편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산문에서 시로의 전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 시를 보면 조금 더 화려합니다.

조금 더 과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산문을 회상하거나 시적인 이야기로 옮기는 것에서 필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의 일부 언어에서 보았습니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시편 7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전통이 회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천사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문을 같은 표현의 시적인 버전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가 다양한 장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출애굽의 개념을 단순한 구원의 실천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었으며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 다른 것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한 가지 용도일 뿐이지만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시편과 실제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다른 장르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것이 다르게 사용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높아지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시편 전체에는 사람의 행위를 폄하하고 최소화하며 하나님의 행위를 높이는 주제가 반복됩니다. 그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그분은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더 이상 모세와 그의 지팡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물속의 피조물과, 사막의 피조물과, 사람과도 직접 대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전에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점과 그것이 특정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출애굽 모티브를 다루는 시편 기자들을 볼 때 그것을 특정한 목적에 맞게 재단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시편 기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작곡가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주석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주석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읽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특정 요점을 가르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시편 기자의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손에 하프를 들고 언덕에 앉아 아름다운 음악을 쓰고 새들의 소리를 듣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시편 기자를 책을 들고 도서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 청중에게 고유한 메시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끝나는 곳입니다. 이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이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 주석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모임, 시편 135편, 주님의 최상권입니다.